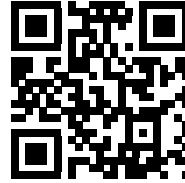


가장 무서운 심판, 내버려 두심

본문 출애굽기 10:12-29 예배 유튜브 QR / 주소

유튜브 <https://vo.la/7PiD3He>



오늘의 한 문장

내 뜻대로 풀리는 완악함은 심판이며,
내 고집이 꺾여 엎드림이 진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상황이 통제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내 뜻이 꺾이고 앞길이 막혀버리면 '고난'이라 부르며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법칙은 다릅니다. 파멸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는 브레이크 고장 난 자동차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차를 막아주지 않고 제멋대로 달려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 왕 바로는 메뚜기 재앙과 칠혹 같은 흑암의 재앙이라는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당장의 고통만 모면하려는 알뜰한 타협만 시도합니다.

성경은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고집을 피운 이유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억지로 악한 마음을 주입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대로 파멸을 향해 질주하도록 제어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음(유기)'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심판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교만하게 살아도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은혜가 떠난 고집은 결국 죽음을 향한 질주일 뿐입니다.

내 뜻대로 풀리는 완악함은 심판이며, 내 고집이 꺾여 엎드림이 진짜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금 삶에 꽉 막힌 담벼락이 있습니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인간적인 꿈수와 타협을 멈추고 그 담벼락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고 굳은 고집이 사정없이 꺾이는 그 아픈 자리가, 역설적으로 우리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살려내는 진짜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묵상하기

말씀 관찰

- 1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무슨 바람을 일으켜 메뚜기를 불어들이셨으며, 며칠 동안 애굽 온 땅에 더듬을 만한 캄캄한 흑암이 있었습니까? (출 10:13, 22)
- 2 재앙 속에서 거짓된 후회와 타협이 결렬된 후,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은 진짜 영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출 10:20, 27)

삶의 적용

- 1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꽉 막혔을 때, 나는 환경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막으심의 축복'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 2 영적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기 위해, 오늘 내가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꺾고 포기해야 할 '나만의 굳은 고집과 인간적인 타협안'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내 고집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막힌 담벼락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엎드리게 하시는 십자가의 참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